

K-푸드, 우즈벡 최대 유통망 타고 중앙아시아 공략 본격화

대사관·코트라·수은 'K-유팀' 결실
우즈벡 1위 까르진카와 MOU 체결
라면·고추장 등 20여 품목 확대
타슈켄트 핵심 매장 3곳에 우선 설치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코트라 및 한국수출입은행은 우즈벡 1위 유통체인인 '까르진카(Korzinka)'와 한국 식품 전용 코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원도연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및 '까르진카(Korzinka)'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코트라

중앙아시아의 미식 허브이자 우리 농식품 수출의 전략적 요충지인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유통망에 대한민국 식품 전용 코너가 정식으로 문을 연다. 재외공관의 외교력과 공공기관의 금융·마케팅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이뤄낸 'K-유팀' 수출지원의 쾌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지난 20일 우즈벡 1위 유통업체 까르진카(Korzinka)와 한국 식품 전용 코너 설치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까르진카'는 1996년 설립된 우즈베키스탄 최대 규모의 유통체인으로, 현재 우즈벡 전역에 약 16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그간 까르진카가 취급해 온 한국 식품은 라면 2~3종과 초코파이 정도로 구색이 매우 적었으

나, 이번 K-푸드 전용 코너 신설을 통해 라면, 고추장, 참기름, 음료 등 20여 개 품목으로 취급 상품이 대폭 확대된다.

까르진카 측은 이번 한국 식품 전용 코너 신설로 기존 라면 품목에서만 약 70% 성장한 150만 달러의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규 진입하는 제품의 수입 규모도 대략 1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지난 4월 '우즈푸드(Uz food) 2026' 전시회를 계기로 추진된 수출 마케팅 활동에 우리 정부의 국가 발전 비전인 'K-이니셔티브'가 더해져 완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코트라가 K-푸드 현지 진출의 초석을 다진 후, 대사관이 자파르 하시모프(Zafar Khachimov) 까르진카 대표와의 면담을 통

해 전용 코너 설치를 직접 제안했다. 여기에 수은이 한국 식품 수입에 필요한 금융협력을 적극 뒷받침하며 협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식품 수출액이 2021년 640만 달러에서 2025년 1870만 달러로 5년 새 약 3배(190%) 가량 급성장할 만큼 K-푸드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국가다. 코트라는 이번 MOU를 기

반으로 유통 인구가 많은 수도 타슈켄트 내 3개 핵심 매장에 전용 코너를 우선 설치한 뒤, 향후 우즈벡 전역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농식품부와 코트라가 협력해 전 세계 10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농식품 시장개척' 사업의 일환이다.

원도연 주우즈베키스탄 대사는 "농식품부와 코트라가 현지 수출 기반을 다진 후 대사관이 주춧돌을 놓고, 수은이 받침돌이 되는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한 현지 'K-이니셔티브' 구현 우수 사례"라며 이번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이제 재외공관은 기존 G2G의 역할을 넘어 G2B 수출 최일선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민 코트라 타슈켄트 무역관장 역시 "이번 K-푸드 전용 코너를 시작으로 한국 식품의 중앙아 시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MIT·프라운호퍼 손잡고 제조 AI 혁신 시동

KIAT, M.AX 공동연구 사업 공고
MIT·에일·프라운호퍼 등 8곳 참여
AI 팩토리·휴머노이드 분야 추진
제조서비스·바이오 과제도 포함

국내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세계 최우수 연구기관들이 손을 잡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공정을 전환하려는 국내 제조 기업의 수요와 세계적 연구기관의 기술 역량을 상호 연계하는 '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사업(M.AX 공동연구)'을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는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 공정과 운영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로 선정된 미

국의 MIT, 예일, 존스홉킨스, 조지아텍, 퍼듀를 비롯해 독일 프라운호퍼, 캐나다 토론토대, 영국 UCL 등 세계 최고 권위의 8개 해외 기관이 참여한다.

산업통상부와 KIAT는 기술협력 수요조사와 전문 기획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인공지능 팩토리, 휴머노이드, 제조서비스, 바이오 등 4개 분야에서 총 9개의 신규 과제를 도출했다. 각 과제는 AI 자율제조 의사결정 수준과 에너지 절감률 등에서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목표를 지향하며,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글로벌 현장 및 테스트베드 실증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설계됐다.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제조 현장에 투입된 다양한 로봇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적응형 멀티 AI 에이전트 통합 제어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작업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후 타 업종과 공정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제조공정과 설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품질 및 에너지 운영을 최적화하는 'AI 팩토리 기술', 석유화학 신소재 개발 전 과정을 자율실험실과 연계해 자동화하는 'AI 제조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도 함께 추진된다.

전윤종 KIAT 원장은 "국제기술협력으로 제조 현장의 데이터, 공정, 설비를 인공지능으로 연결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제조 인공지능전환(M.AX)의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규 과제 신청 접수 마감은 7월 15일이며, 상세한 공고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at.or.kr) 상단의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남부발전·대한상의, 산업계 탄소중립 맞손

온실가스 감축·탄소시장 정보 교류

한국남부발전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산업계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과 탄소중립 이행 및 에너지 대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계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확산 기조에 발맞춰 마련됐다. 에너지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앞당기고 민간 협력 기반의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 분야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사

업을 전개한다. 주요 협력 항목은 ▲산업계 탄소중립과 녹색대전환 관련 정책·제도 연구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탄소시장 정보 교류 ▲신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저장(CCU/S) 등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등이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산업 전반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양 기관은 이에 대응해 'AI 활용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새로운 산업 성장 전략도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탄소 감축 수요와 기술적 요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기후테크 기반의 신사업 확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세종=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ILO와 사회보장 협력 넓힌다

한국 산재보험 운영 경험 공유

근로복지공단이 국제노동기구(ILO)와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ILO 아태지역사무소 대표단과 양자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가오리 나카무라-오사카 ILO 아태지역사무소장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비롯해 ▲재활·직업복귀 지원체계 고도화 ▲디지털 기반 산재보험 행정 혁신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의 선진적인 산재보험 운영 경험과 재활 인프라, 디지털 행정 역량 등 현장 중심의 강점을 소개했다. 이에 ILO 측은 국제 기준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국가의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제도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향후 양 기관은 한-ILO 협력사업, 초청연수, 국제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산재보험 운영 경험과 ILO의 국제적 정책 전문성이 결합된다면 아태지역 국가의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제도 발전에 의미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인도 CEPA 개선협상 2년 만에 본격 재개

25~27일 인도 뉴델리서 개최
양국 대표단 60여 명 협상 참여
2022년 중단 뒤 공식 논의 재개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물꼬를 튼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이 마침내 다시 시작됐다.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으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지 2년 만이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5일~27일까지 사흘간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CEPA 개선을 위한 첫 공식 협상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10년 CEPA 원협정이 발효된 이후 변화된 글로벌 통상 환경을 반영하고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달기비에서 열린 '한-인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선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22년 이후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정체됐던 협상은 올해 초부터 재개를 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정상순방 당시 재개 합의의 공동선언

문을 발표하면서 극적으로 회생했다.

이번 개선협상에는 우리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인도 측 카필 초드리(Kapil Chaudhary) 상공부 국장을 각 각 수석대표로 해 총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다. /세종=한용수 기자